

호주,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

권 오 복*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는 지난 9월 하순 3분기 세계 경제동향과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 주요 농산물의 수급 동향과 전망,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등 ABARE의 3분기 전망 내용을 3회에 걸쳐 정리한다.

2007년과 2008년 세계 경제는 2006년도의 5.5%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4.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계 주요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미국 경제성장이 견실한 가운데 중국경제의 고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근 국가의 경제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2007~08년 호주 경제는 2006~07년의 3.3%보다 다소 높은 3.75%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1. 세계경제 전망

세계금융시장의 변동성 위험

2007년 8월 초부터 미국 주요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극심한 변동과 서부유럽, 일본, 그리고 그밖에 아시아 국가들에서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세계 주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bkwon@krei.re.kr 02-3299-4210

경제에서 소비자들의 수요와 투자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는 7월 중순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8월 하순경 10% 가까이 하락했다가 9월 초순 부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세계의 주시 시장 개황

| | 주식시장 지수 | | |
|--------------|-------------|------------|-------|
| | 52주간 최고치 1) | 2007년 9월 초 | 변동률 |
| OECD | | | |
| 미국 | 14,000 | 13,113 | -6.3 |
| 일본 | 18,300 | 16,122 | -11.9 |
| 유럽 | 4,558 | 3,685 | -19.2 |
| 호주 | 6,422 | 6,278 | -2.2 |
| 동아시아 | | | |
| 중국 | 5,664 | 5,541 | -2.2 |
| 한국 | 2,004 | 1,885 | -6.0 |
| 대만 | 9,808 | 9,018 | -8.1 |
| 동남아시아 | | | |
| 인도네시아 | 2,401 | 2,240 | -6.7 |
| 말레이시아 | 1,392 | 1,305 | -6.3 |
| 필리핀 | 3,802 | 3,333 | -12.3 |
| 싱가폴 | 3,689 | 3,489 | -5.4 |
| 태국 | 884 | 801 | -9.4 |
| 인도 | 15,795 | 15,590 | -1.3 |

주: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최고 지수

주식시장이 심하게 요동치면 소비자들의 자신감과 지출이 줄어든다. 세계 경제에서 소비자 지출이 약 2/3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가하락은 세계 경제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주식가격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자본투자계획을 기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된 것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에서 문제와 미국 주택시장의 취약성 때문이다. 미국은 서부유럽과 아시아 수출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다. 미국 경제 활동의 부진, 특히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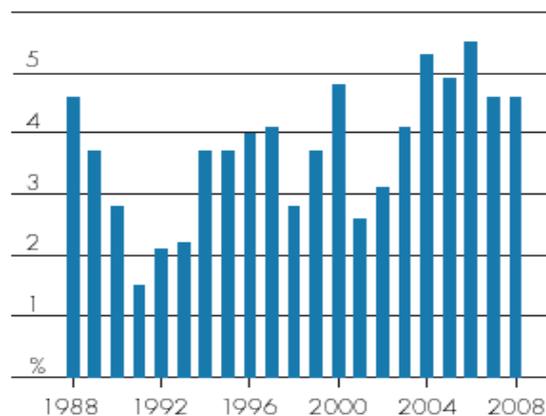
비자 지출과 수입수요 완화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수출업자들은 현재와 같은 증시의 불안정이 세계 경제 성장, 특히 세계시장에서 상품 수요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주식 시장에서 상당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공개된 경제지표들에 의하면 세계 주요 경제에서 확장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 및 투자지출에 대한 증시 영향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시 불안정이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주요 경제에서 대응 정책에 여하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불안의 증가와 주식 가격의 변동이 심해지자 미국 연방은행과 유럽중앙과 같은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화폐시장에 자금유입을 증가시키거나 이자율을 낮추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볼 때 미국, 서유럽,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이전에 기대한 것과 달리 긴축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세계의 경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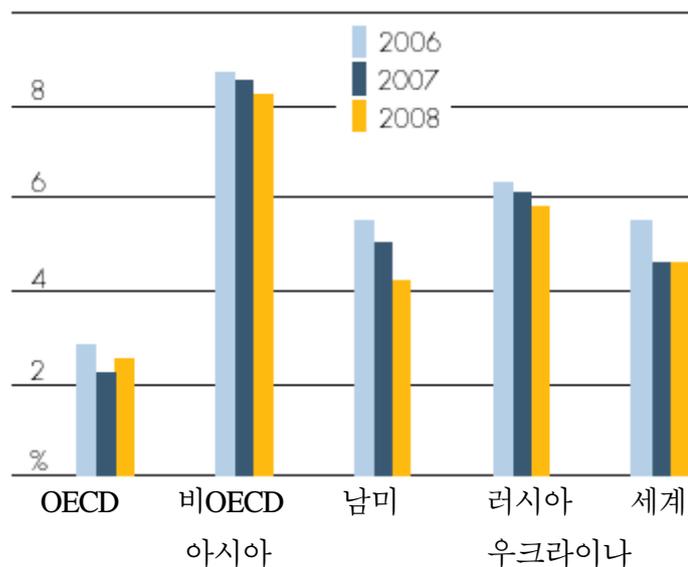


세계 경제의 빠른 성장세 지속 전망

주식시장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2007년 1분기 미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최근 지표를 볼 때 2분기부터는 다시 활력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밖의 다른 OECD국가들의 경제는 확대일로에 있다. 예를 들어 서유럽 경제는 내수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밖에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도 건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는 계속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다. 2분기 중국의 경제는 전년대비 12% 성장하였다. 인도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9.3% 성장하였고, 1분기에는 9.1% 성장하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등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도 건실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그림 2 세계 주요 지역별 경제 성장



세계 주요국 경제가 강세를 띠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조짐은 미미한 편

이다. 그러나 일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와 식품가격으로부터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오일가격은 계절적인 수요 증대와 제한된 공급능력으로 말미암아 최근 오름세에 있고, 식품가격은 불리한 기후조건과 같은 공급측면과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의 금융당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지난 9월 중순 이자율 인상 등 2007년 들어 여섯 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올렸다. 인도 역시 2007년 6월 이자율을 올렸는데 이는 지난 12개월간 다섯 번째 이자율 인상에 해당한다.

일부 신흥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과 2008년 세계 경제는 2006년 5.5%보다 다소 낮은 각각 연평균 4.6%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2 주요 거시경제지표 가정

| | 단위 | 2005 | 2006 | 2007 | 2008 |
|----------------|-----------|------|------|------|------|
| 경제성장률 | | | | | |
| OECD | % | 2.4 | 2.8 | 2.2 | 2.5 |
| 미국 | % | 3.1 | 2.9 | 1.8 | 2.6 |
| 일본 | % | 1.9 | 2.2 | 2.2 | 2.0 |
| 서유럽 | % | 1.5 | 2.8 | 2.5 | 2.3 |
| 한국 | % | 4.0 | 5.0 | 4.7 | 5.0 |
| 뉴질랜드 | % | 2.2 | 1.5 | 2.7 | 2.3 |
| 개발도상국 | % | 7.0 | 7.7 | 7.5 | 7.1 |
| 러시아 | % | 6.4 | 6.7 | 7.0 | 6.5 |
| 세계 | % | 4.9 | 5.5 | 4.6 | 4.6 |
| 인플레이션 | | | | | |
| 미국 | % | 3.4 | 3.2 | 2.1 | 2.3 |
| 미 달러 환율 | | | | | |
| 대 엔화 | Yen/US\$ | 110 | 116 | 119 | 120 |
| 대 유로화 | Euro/US\$ | 0.80 | 0.80 | 0.75 | 0.77 |

자료: ABARE, IMF, OECD, ABS, RBA.

미국과 아시아에서 유가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듯

지난 몇 달간 세계 유류 가격의 강세로 인해 많은 유류 수입국들에 대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왔다.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은 지난 7월말 배럴당 78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9월 초 76달러로 소폭 하락하였다. 2007년 8월까지 서부텍사스 중질유의 배럴당 평균 가격은 65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수준은 2006년 배럴당 평균 가격인 66달러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유류가격 강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는 데에는 현재의 환율 움직임도 파악해야 한다. 세계의 유류가격은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데 최근 달러화가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의 화폐에 대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아시아의 많은 국가와 같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 달러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표 3 자국 화폐로 표시한 원유 가격

| | 화폐 | 2006 평균 | 2007.1~8 | '06부터 변화율 | 2007.9월초 | '06부터 변화율 |
|-------------|------|---------|----------|--------------|----------|--------------|
| OECD | | | | | | |
| 미국 | US\$ | 66.1 | 64.6 | -2.2 | 75.7 | 14.6 |
| 일본 | 엔 | 7,663 | 7,722 | 0.8 | 8781 | 14.6 |
| 서유럽 | € | 52.4 | 48.1 | -8.2 | 55.5 | 6.0 |
| 영국 | £ | 35.8 | 32.5 | -9.1 | 37.5 | 4.9 |
| 호주 | A\$ | 87.9 | 79.0 | -10.2 | 91.7 | 4.3 |
| 아시아 | | | | | | |
| 중국 | 위엔 | 526.7 | 496.2 | -5.8 | 572.1 | 8.6 |
| 말레이시아 | 링기트 | 243.6 | 224.6 | -7.8 | 265.1 | 8.8 |
| 인도네시아 | 루피아 | 608,266 | 587,396 | -3.4 | 715,360 | 17.6 |
| 인도 | 루피 | 2,993 | 2724 | -9.0 | 3100 | 3.6 |

최근의 유가 강세가 미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에 대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유로권 지역과 호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예를 들어 9월 초 유러화 기준 유류가격은 2006년 평균에 비해 단지 6%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일본의 엔화와 미 달러화 기준 15% 상승한 것과 인도네시아 루피아(Rupiah) 기준 1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에 불과한 것이다.

2008년 미국 경제 성장 전망

미국 경제는 2007년 1분기까지 정체를 보이다가 2분기부터 회복세를 띠고 있다. 2007년 2분기까지 미국 경제는 실질 GDP 기준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2006년 같은 기간 0.6%와 비교할 때 높은 성장률이다.

이처럼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로 돌아서게 된 데에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투자와 기업의 시설지출과 수출이 주로 기여했다. 반면 주택투자과 개인소비지출 감소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발표되는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산업 생산의 경우 1분기에는 1.1% 성장에 그쳤지만 2분기에는 2.9% 증가하였다. 산업가동률도 1분기에는 81.3%였지만 2분기에는 81.5%로 높아졌다. 고용시장도 활기를 띠며 2007년 8월 실업률이 4.6%로서 지난 6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4 주요국 화폐에 대한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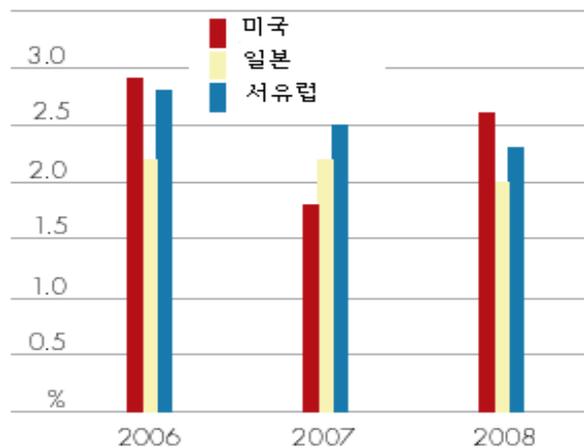
| | 2006년 2월 초 | 2007년 9월 초 | 변화율 |
|-------------|------------|------------|-------|
| OECD | | | |
| 일본 | 118.93 | 115.95 | -2.5 |
| 유로 지역 | 0.83 | 0.73 | -12.1 |
| 호주 | 1.35 | 1.21 | -10.3 |
| 아시아 | | | |
| 중국 | 8.06 | 7.55 | -6.2 |
| 인도 | 44.27 | 40.94 | -7.5 |
| 말레이시아 | 3.77 | 3.50 | -7.2 |
| 필리핀 | 52.10 | 46.67 | -10.4 |

최근 경기 회복과 미 달러화 약세로 인해 미국의 수출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1분기 미국의 수출은 1.1% 증가에 그쳤지만 2분기에는 7.6% 증가했다. 반면 미 달러 약세에 힘입어 2분기 미국의 수입은 3.2% 감소했다. 1분기 미국의 수입은 3.9% 증가했었다.

2004년 중반부터 미국 금융 당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실시해 왔다. 최근 주식 시장 불안정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9월 중순 경에 연방자금의 이율을 0.5% 인하하였다.

상품을 포함한 세계 경제 전망을 내리는 데 있어 기본 가정은 미국 경제가 2007년 1.8%, 2008년에는 2.6% 가량 성장할 것이란 점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 주요 변수는 향후 주택시장의 동향이다. 주택 수요가 감소하여 많은 지역에서 주택투자가 줄어들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림 3 OECD 경제 성장



주택가격의 움직임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는 가계의 자산에 대한 영향으로서 실질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지출과 금융부문에서 자금 차입 능력이 약화된다. 두 번째는 주택건설의 위축은 주택건설 고용과 관련 산업을 약화시킬 것이다.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는 주택 수요 및 가격의 강세에 따라 서브프라임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서브프라임 시장은 미국 전체 모기지 시장의 15% 정도에 불과하지만, 서브프라임 시장에서 연체와 채무불리행이 증가하면 결국 미국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중국경제의 높은 성장세 지속될 전망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를 둔화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상반기 중국 경제는 더욱 성장하였다. 2007년 2분기 국내총생산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1.9%가 증가하여 10조 7,000위엔(약 1조 4,00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의 2007년 2분기 급속한 경제성장은 주로 투자, 소비,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같은 분기 제조업, 광업, 건설과 같은 2차 산업은 1년 전에 비해 14% 성장하였다. 반면 1차 산업과 3차 산업(수송, 우편통신, 외식업, 관광, 은행 및 보험 등)은 각각 4%, 11% 성장하였다.

2007년 중국의 상반기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5조 4,200억 위엔(약 7,170억 달러)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외국인 직접 투자 역시 전년 대비 12% 증가한 311억 달러에 달했다. 2007년 상반기 대외무역총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9,81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6년 말 기준 2,660억 달러가 증가한 1조 3,000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은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물가상승의 압력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07년 9월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는 6.5% 상승해 과거 8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식품 가격은 18% 상승하였다. 이것은 비식품 소비자 가격 상승률인

1%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출 이자를 인상해 왔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당분간 긴축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전망을 위해 중국 경제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11.3%, 10.6% 성장하는 것을 가정했다. 참고로 200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1.1%였다.

인도 경제도 빠르게 성장할 듯

최근 인도는 세계에서 경제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제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 개방, 산업 규제 폐지, 변동환율제 채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1990년대 구조개혁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4년간 인도는 연평균 8.6% 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07년 2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9.3% 증가하였다. 2007년 1분기에는 전년대비 9.1%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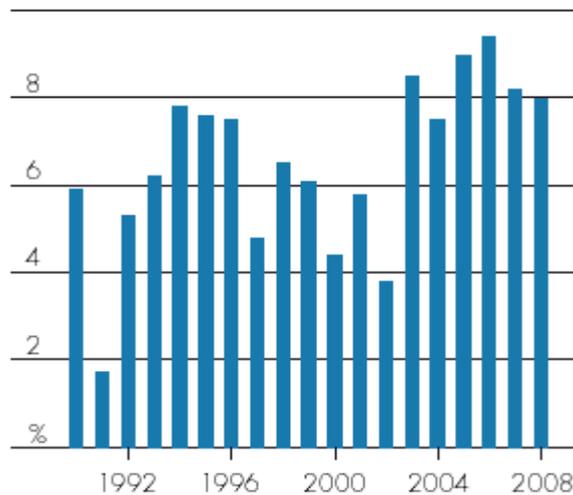
인도의 경제 성장은 자국 경제의 55%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서비스 부문은 연평균 10% 성장하였다. 인도는 세계에서 주요서비스 수출국으로 부상하여 세계 서비스 교역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세계 상품교역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하다. 최근 인도의 제조업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6~07년 인도의 제조업 부문은 11% 성장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도에서 농업부문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낸다. 2000

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인도의 농업은 연평균 3% 가량 성장하는데 그쳤다. 인도의 농업은 기후조건에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면 2003년 한발로 농업생산이 크게 감소한 반면 2003~04년에는 기후조건이 양호해서 농업생산이 10% 증가하였다. 2006~07년 농업생산은 2.7% 가량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에서 농업은 전체 GDP의 18%를 차지하지만 고용 면에서는 2/3를 차지하여 여전히 중요한 산업이다.

향후에도 인도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 예를 들면 2007년 6월 공업생산은 전년대비 9.8% 증가하였다. 2007년과 2008년 인도의 경제는 각각 8.2%, 8.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2006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9.4%였다.

그림 4 인도의 경제 성장



이처럼 앞으로도 인도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는 노동력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도는 전체인구에서 노동인구 비중이 향후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이다. UN의 추계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2000년 6억 3,200만

명에서 2040년에는 11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인구 대비 노동인구의 비중은 2000년 60%에서 2040년에는 6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노동력 증가가 향후 인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데 토대가 된다.

2. 아시아의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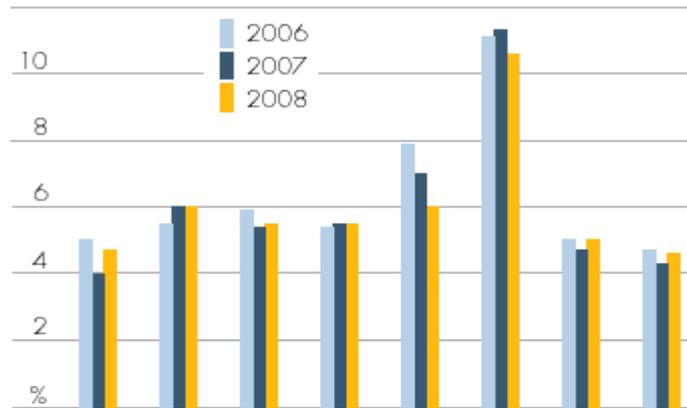
일본경제, 성장 추진력 상실

2007년 중반 일본 경제는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2007년 2분기 실질 GDP가 0.3%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해 1분기에는 실질 GDP가 0.3% 증가한 바 있다. 이처럼 경제가 후퇴하게 만든 주된 요인은 수출 부진이다. 2007년 2분기 일본의 수출은 0.8% 증가에 그쳤다. 같은 해 1분기에는 수출이 3.4% 증가한 바 있다. 2분기 일본의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여 3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2분기 0.3%의 민간소비 증가는 1분기 0.8%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준이다.

최근 공개된 일부 경제지표에 따르면 일본경제가 성장 추진력을 잃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2분기 법인 자본 지출은 1.2% 감소하였다. 1분기에는 0.2% 감소에 그쳤다. 2007년 7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4% 감소하였다. 2007년 7월 실업률은 3.6%로서 9년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의 단기 전망은 민간소비의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일본 경제 기저의 환경은 경제회복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가운데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설비를 확장하고 고용을 늘리면 노동시장은 실질임금 상승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실질 임금이 상승될 경우 민간소비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림 5 아시아의 경제 성장



2007년과 2008년 일본의 경제는 각각 2.2%, 2.9%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것은 2006년도 일본 경제성장률 2.2%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

2007년 2분기 한국 경제는 전년대비 5.0%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해 1분에는 4.0% 성장하였다. 2분기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한 것은 민간소비, 기업 투자, 그리고 수출의 증대에 기인한다. 2007년과 2008년 한국의 경제는 각각 4.7%, 5.0%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기간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과 함께 부정적인 요인이 함께 존재한다. 긍정적인 요인은 수출, 투자, 민간소비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부정적인 요인은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가계대출이 증가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2006년 말 한국의 민간대출은 41조원(약 440억 달러)에 달했다.

동남아시아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수요에 힘입어 아시아의 비OECD 국가들의 경제 활동은 활발한 편이다.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유가 상승은 일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재현 압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07년 2분기 대만의 경제는 5.1%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1분기에는 4.2% 성장하였다. 제조업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대만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과 2008년의 대만 경제는 각각 4.3%, 4.6%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태국의 경제는 2007년 2분기 공업생산이 전년대비 4.9% 증가하는 등 건실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2007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는 1.1% 상승하였다. 2006년 같은 기간에는 4.6% 상승한 바 있다. 2007년과 2008년 태국의 경제는 각각 4.0%, 4.7%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06년 태국의 경제는 5.0% 성장하였다.

말레이시아 경제 역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7년 2분기 말레이시아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기준 5.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3월말 현재 무역흑자 규모도 260억 달러로서 이는 말레이시아 GDP의 14% 수준에 해당한다. 2007년과 2008년 말레이시아 경제는 각각 5.4%, 5.5%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비OECD아시아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2007년 경제는 평균 8.5% 성장하다가 2008년에는 8.2%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06년 경제성장률은 8.7%였다.

3. 호주 경제 전망

2007년 중반 호주 경제 상태는 양호하다. 실질 GDP 기준으로 호주 경제는 1분기 1.6% 성장에 이어 2분기에도 0.9% 성장을 기록하였다. 실업률도 4.3%에 불과해 지난 32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무역 수지는 1분기 35억 달러 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38억 달러 적

자를 나타냈다. 경상수지는 1분기 155억 달러 적자에서 2분기에는 16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호주 농업지대의 대부분은 한발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금년도 기후조건이 2006~07년보다는 양호하지만 늦은 겨울과 이른 봄 건조한 날씨로 인해 동계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고 목초 생산이 평년 수준 이하이다.

앞으로의 강우 시기, 분포, 그리고 양에 따라 농업생산과 수출이 결정될 것이다. 더구나 여러 지역에서 저수량이 충분치 않아 2007~08년 관개원예, 하계경종작물, 관개가 필요한 낙농생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7~08년 전체적으로 볼 때 호주 경제는 3.75% 성장할 전망이다. 참고로 2006~07년 호주 경제는 3.3% 성장하였다.

인플레이션은 3% 이하일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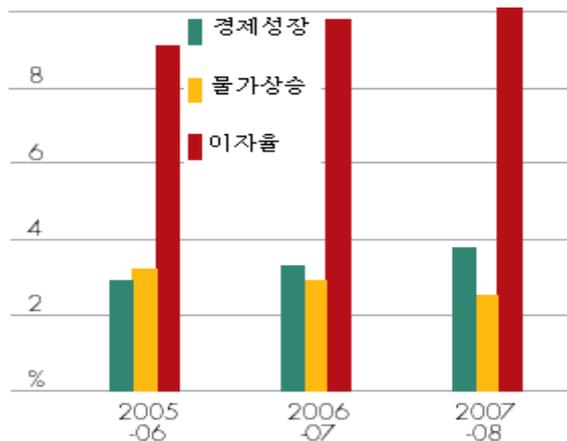
2007년 2분기 호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1% 증가하였다. 반면 1분기에는 2.4% 늘어났다. 2분기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은 석유(전년대비 9%), 과일(8.4% 증가), 채소(6.1%) 등이다.

최근 발표된 그 밖의 물가지수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2007년 2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1분기에는 2.8% 증가했다. 2분기 생산자물가지수 중 호주 국내 부분은 전년대비 3.5%(1분기에는 2.9%) 증가하였다.

호주의 환율

지난 몇 개월간 미국 달러와 무역 가중평균 기준으로 볼 때 호주 환율은 대체로 불안정했다. 2007년 6월 초와 7월 중순 호주 달러는 상당정도로 평가 절상되었다가, 8월 중순 급격하게 평가 절하되었다. 9월 초순 호주 1달러는 달러는 미국 달러 82센트와 교환되었다. 참고로 미 달러로 표시된 호주 1달러의 가치는 7월 중순에는 88센트, 6월 초순에는 83센트였다.

그림 6 호주의 경제 지표



최근 호주 달러가 현저하게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미국 서브프라임시장에 대한 우려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과 이것이 미국 경제, 중국적으로는 수요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호주 달러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호주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전망에서 미 달러로 표시된 2007~08년 호주 1달러 가치는 84센트이다. 2006~07년 호주 1달러는 미국 달러 기준 78센트였다. 호주 달러와 관련 단기적으로 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시장 발 금융시장의 위험 증가로 인해 미국 금리 인하 압력이 크게 존재할 수 있다. 미국 금리 이하로 인해 미국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 호주 달러는 가치가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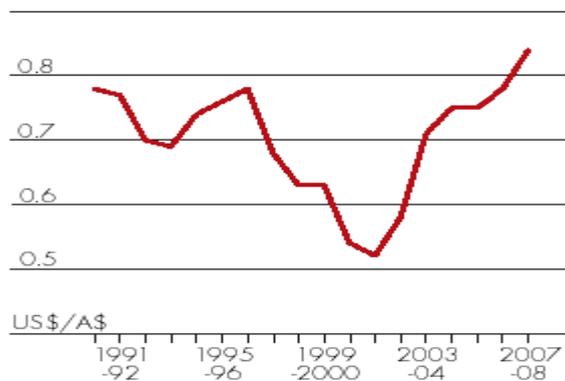
라갈 수도 있다.

반면 미국 당국이 긴축정책을 펴서 미국 경제 성장이 지장을 받는다면 이것은 세계의 주요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시장에서 상품 수요가 약화되고 그에 따라 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호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는 결국 호주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할 수 있다.

이자율 동향도 호주의 화폐가치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호주 이자율을 전망하는데 주요 요인은 경기전망과 물가동향이다. 호주 경제가 건설하게 성장하는 한 호주의 기준 이자율은 평균치를 웃돌 전망이다. 2007~08년 호주의 기준이자율은 평균 10.1%로 전망된다. 2006~07년도 기준이자율은 9.8%였다.

지난 수개월간에 걸쳐 판명된 것처럼 호주 달러의 움직임은 금융시장의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호주 달러 가치의 변동은 환율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호주 환율의 변동과 관련된 위험의 관리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자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림 7 호주의 환율



4. 호주 상품 부문 전망

농산물 수출가격은 상승하겠지만 광물 수출가격은 하락할 듯

2007~08년 호주 상품의 수출단가지수는 전년대비 1% 하락할 전망이다. 2006~07년에는 8% 증가했었다.

농산물의 수출단가지수는 2006~07년의 4% 증가에 이어 2007~08년에는 10% 증가할 전망이다. 소맥, 대두, 옥수수, 목화, 쇠고기, 양모, 낙농제품의 2007~08년 세계의 기준가격이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조건은 나빴어도 수출은 크게 증가할 듯

2007~08년 호주의 상품수출은 2006~07년 1,392억 달러에서 1,447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농산물과 광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7~08년 농산물 수출은 전년의 276억 달러보다 3.3% 증가한 285억 달러로 예상된다.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로는 대부분의 곡물, 유량종자, 포도주, 산 동물, 양고기 및 낙농제품 등이다. 2007~08년 호주의 임산물과 수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4% 증가한 40억 달러로 추산된다.

표 5 호주 상품 부문의 주요 지표

| | 단위 | 2004~05 | 2005~06 | 2006~07 | 2007~08 ⁴⁾ | 전년대비 증감율(%) | |
|---------------------|----------|---------|---------|---------|-----------------------|-------------|---------|
| | | | | | | 2006~07 | 2007~08 |
| 상품수출 | | | | | | | |
| 환율 | US\$/A\$ | 0.75 | 0.75 | 0.78 | 0.84 | 4.0 | 7.7 |
| 수출단가 ¹⁾ | | | | | | | |
| 농산물 | 지수 | 120.0 | 158.7 | 173.5 | 167.9 | 3.8 | 0.0 |
| 광물자원 | 지수 | 120.0 | 158.7 | 173.5 | 167.9 | 9.3 | -3.2 |
| 상품전체 | 지수 | 110.9 | 137.0 | 148.3 | 146.7 | 8.2 | -1.1 |
| 수출액 | | | | | | | |
| 농축산물 | 백만호주달러 | 27,911 | 27,947 | 27,584 | 28,489 | -1.3 | 3.3 |
| 농산물 | 백만호주달러 | 13,679 | 14,108 | 12,759 | 13,222 | -9.6 | 3.6 |
| 축산물 | 백만호주달러 | 14,232 | 13,838 | 14,825 | 15,267 | 7.1 | 3.0 |
| 임수산물 | 백만호주달러 | 3,660 | 3,687 | 3,843 | 3,990 | 4.3 | 3.8 |
| 광물자원 | 백만호주달러 | 69,498 | 92,438 | 107,774 | 112,228 | 16.0 | 4.1 |
| 상품전체 | 백만호주달러 | 101,070 | 124,071 | 139,201 | 144,707 | 12.2 | 4.0 |
| 농업부문 | | | | | | | |
| 조생산액 | 백만호주달러 | 35,180 | 38,401 | 33,013 | 37,200 | -14.0 | 12.7 |
| 농산물 | 백만호주달러 | 17,353 | 20,724 | 14,880 | 18,222 | -28.2 | 22.5 |
| 축산물 | 백만호주달러 | 17,827 | 17,677 | 18,133 | 18,978 | 2.6 | 4.7 |
| 생산비 | 백만호주달러 | 29,826 | 31,139 | 31,089 | 32,194 | -0.2 | 3.6 |
| 순소득 ²⁾ | 백만호주달러 | 10,670 | 11,038 | 5,857 | 9,056 | -47.1 | 54.6 |
| 농업순가치 ³⁾ | 백만호주달러 | 5,354 | 7,262 | 1,924 | 5,006 | -73.5 | 160.1 |
| 농가교역조건 | 지수 | 91.0 | 95.3 | 98.2 | 98.9 | 3.0 | 0.7 |
| 농업생산 | 지수 | 110.7 | 107.7 | 85.5 | 89.5 | -20.6 | 4.7 |
| 농산물 | 지수 | 116.8 | 111.8 | 68.7 | 80.2 | -38.6 | 16.7 |
| 축산물 | 지수 | 103.1 | 102.1 | 104.1 | 99.1 | 2.0 | -4.8 |
| 재배면적 | 천ha | 23,808 | 22,300 | 19,415 | 21,328 | -12.9 | 9.9 |
| 양 사육두수 | 백만두 | 101.5 | 92.7 | 86.8 | 85.9 | -6.4 | -1.0 |
| 소 사육두수 | 백만두 | 28.3 | 28.8 | 27.8 | 28.0 | -3.5 | 0.7 |
| 고용 | | | | | | | |
| 농림수산업 | 천명 | 364 | 354 | 357 | n.a. | 0.8 | n.a. |
| 광업 | 천명 | 93 | 115 | n.a. | n.a. | n.a. | n.a. |
| 전체 | 천명 | 9,586 | 9,859 | n.a. | n.a. | n.a. | n.a. |

주: 1) 2001-02=100, 2) 농가조수입-유통기구소유 자산증가분-현금비용, 3) 농업생산조수입-총생산비, 4) ABARE 전망치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ARE.

참고자료

Jammie Penm and Marina Kim, "Economic Review," Australian Commodities, Vol. 14, No. 3, September Quarter 2007.